

근대유산, 공간스토리 연구 -김유정을 중심으로-

Modern Heritage, Space Story Study with Kim YouJeong

김금미, 이영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Kim Kum-Mi, Lee Young-Ko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K-POP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주목 받고 있다. 그로 인해 국내유입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 또한 늘고 있다.

한국 문학에 대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번역과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같이 병행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가의 작품에 드러나는 심상공간은 작품뿐 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중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 유무형자산의 담보로 공간스토리텔링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가치가 무한하다. 이는 지역을 브랜드화하여 홍보 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

I. 서론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해외출간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 91건으로 국가별 중국이 33건, 대만 25건”[1] 등 크게 집중되어 있다. 김유정작가의 작품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영문 등으로 해외에서 출판되었다. 문학작품 공간에 대한 분석은 근현대 문화유산 개발에 있어 사용자 경험에 의한 접근성은 문화매개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문학작가에 대한 “전기역사주의 비평적 관점은 문학적 이미지를 작가의 생의 한 요소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문학적 공간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체험으로써 작가의 작품공간을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2]

“1930년대는 주체의 상실과 식민지적 타자화의 과정이 공고화 된 시기로... 식민지 조선인들은 열차, 영화 등 근대화가 일상속으로 침투한다.” 하였고 근대작가 김유정의 『슬픈이야기』, 『봄과 따라지』 에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생활상이 작품에 리얼리티가 그려져 있다. 두 작품에는 도시로 올라온 시민들의 모습 속에 도성안과 도성 바깥에 공간으로 분리하여 전통과 근대화 경계선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작품 속에 거리, 주택, 여성 등의 문제를 단편에 잘 녹아냈다.

II. 작가의 근·현대 지리적 위치

김유정(1908-1937) 춘천 실례에서 서울로 이주해 살아간다. 9세 때는 안국동에서 관철동으로 제동공립보통학교를 거쳐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한다. 그의 나이 16

세 때 다시 관철동에서 송인동으로 이주한다. 1927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들어가나 1921년에 중퇴한다. 일제시대의 근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산, 경기도, 서울, 춘천을 오가며 떠돈다.

신심리주의 비판하던 김유정은 1930년대 모더니즘의 출발지였던 이상의 추천으로 구인회에 가입한다. 순수문학을 도모하는 친목집으로 문단진입과 함께 모더니즘의 신심리주의 대타적인 관계에 있던 카프(KAPF; Korea Artsta Proleta Federation) 휘문고 시절 임화, 안희남 등 카프의 소장파 핵심 멤버들과 친분관계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모더니즘의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것으로 일제시대의 시대상, 즉 근대화 물결이 시작된 도성안과 밖의 모습을 대조시키므로 해서 사회주의적 계급 강조가 아닌 반대로 주변부, 근대사회의 신기루와 같은 조선인의 삶을 투영하는 묘사한다.

III. 작품 공간의 근·현대 지리적 위치

1) 비극적 삶의 공간

『슬픈이야기』는 조선인의 비극적 삶의 공간으로 1936년 작품에 드러나는 신당리 공간은 조선의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모여 터를 일군 곳이다. 일제시대 근대화의 산업화 속에 드러나는 생활실태 드러나 있다. 전차 운전수는 13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 모은 돈을 지키려는 전차기사의 입장과 처, 처남이 세 사람이 살기도 힘든 셋방살이가 잘 묘사 되어있다.

....전차운전수 되어 가지고, 지금 사람이 원체 착실해서 돈

도 무던히 모였다고 요 통안서 소문이 자자하게 난 그저 저금 팔백원이라나 얼마나 모으기를 시작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밤일에서 늦게 돌아오다가 속이 후출하여 다른 동무들은 냉면을 먹고, 설렁탕을 먹고 하는 것을 높은 홀로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언제나 잊지 않고 꼭 대추 두 개로만 요기를 하고는 그대로 자고 자고 한 그덕도 있거니와 엄동에 목どり, 장갑 하나 없이 그리고 겹저고리로 떨면서 아침저녁 거름내기로 뽕도를 붙이러 다니던 그 아내의 피땀이 만들고야 그 돈이 칠팔백 돈이 어디서 떨어지는가...신당리 라는 데는 본시라 푼푼치 못한 집동사니만이 웅기증기 몰린 속으로 점잔한 것이라고는 전에 한번도 해본일 없이...여학생 장가, 수다쟁이...세사람 재우기에도 웅색한 셋방에 깍짓동 같은 커다란 몸집이 널찍하게 터를 잡고는...[3]

전차기사가 거주하는 신당리 인근 대현산에 있던 오물처리장과 공동묘지가 있어 주거지역으로 취약하였다. 서울주변에는 농촌에서 고향땅과 집을 버리고 이주해온 농민들이 토막집을 지어 생활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전월세를 두어 집을 칸을 나눠 세를 주어 사글세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잦았다.

경성부가 문화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곳으로 이때 자산가들은 신당리 땅을 매입한다. 이외에도 송인동, 창신동과 마포의 도화동, 용산 청파동인 청엽정 일대가 있으며 1936년 조선시가지 계획령과 1937-1940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내세워 개발정책에 편입 된 영동포, 성북, 성동 등도 적용시킨다. 여기에는 중일 전개의 군수물자수송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속셈이 깔려 있었다. [4]

2) 근대화의 공간

『봄과 따라지』에는 장날 풍경이 잘 묘사가 되어있다. 아시는 명사로 경상도 방언으로 여우를 지칭하며 여자로 비유되기도 한다. 혹은 야시장(밤에 벌이는 시장)을 지칭한다. 그런 단어의 복합적인 의미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따라지가 시장의 동남을 하다 마주친 신여성을 따라 가게 된다. 우미관 골목길을 따라가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장삼인지 저고린지 모를 앞자락이 척 나간 학생복 저고리. 하난 삼년간을 내려입은 덕택에 속껌데기가 꺼칠하도록 때에 절었다....너털거리는 소맷등으로 코밀을 싹 훑치고 고개를 돌리어 위아래로 아시를 훑어본다.... 전차길을 가로 지르려 할제 맛따뜨린 것이 마주 건너오던 한 신여성이 다....우미관 옆골목에 몰래 들창으로 들여다 보던 아슬아슬하고 인상깊었던 그 장면....

1936년도 작품에는 종로2가에 위치해 있던 극장 우미관이 등장한다. 단성사와 더불어 1910-1920년대 조선인들이 우미관, 조선극장을 자주 드나들던 곳으로 우미관은 김두한과 얽힌 장소이며 현재 우미관은 종로2가 맥도널드 옆 골목, 삼겹살집 앞에 표지석이 있다. 조선극장

터는 탑골공원에서 인사동 들어가는 길목의 소공원, 인사문화마당의 대나무 숲 앞에 표지석이 있다.

현재 유일하게 단성사만 남아있다. 위치는 종로구 묘동 56번지에 위치해 있다.

IV. 결론

문학작가에 대한 전기역사적비평적 관점은 작품에 드러나는 기록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의 시대적 화두는 작품 속 공간이 현재 남아 있는 일제시대 문화주택이 남아 있는 신당동이라는 장소로 연결된다. 현재라는 시공간에 근대유산의 공간을 상징할 수 있다. 문화주택은 현재 2008년 10월10일 등록문화재 제412호로 등록된 박정희 대통령 가옥이 남아있다. 김유정의 각 국에 번역된 이야기는 독자에게 작품의 심상공간으로써 현재공간에 삶의 총체적인 형태를 랜드마크 하게 된다.

그 작품 속 도시, 혹은 작가와 연관된 일련의 스토리의 공간은 그 지역의 문화코드로 엮을 수 있는 루트, 즉 작가의 과거의 시대를 현재에 불러일으키는 만나게 되는 순례형태로 하나의 가상의 테마공간, 즉 “현실공간의 이면 세계, 실재하는 공간의 역사적 지리적인 담보이자 원천으로써 문학공간은 공간적 상상력을 갖게 된다.”[5]

새로운 사실과 허구의 복합공간들은 때로는 문학유산에 대한 차별화 된 관리 및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문학공간들이 개발되어 각 지역 문화관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한국문학번역원
<http://opia.klti.or.kr/m/view.jsp?ncd=532>
- [2] 김연수, 「문학공간 ‘현저동’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p304-305, 2005.
- [3] 김유정, 『김유정단편집』, 서문당, p.179-198. 2006.
- [4] 김홍순, 「일제시대 1936년 조선시가지 계획령과 1937-1940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내세워 개발정책」,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4호 p.1-173. 2007.
- [5] 이영구 외, 『도시와 작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4, 2009.